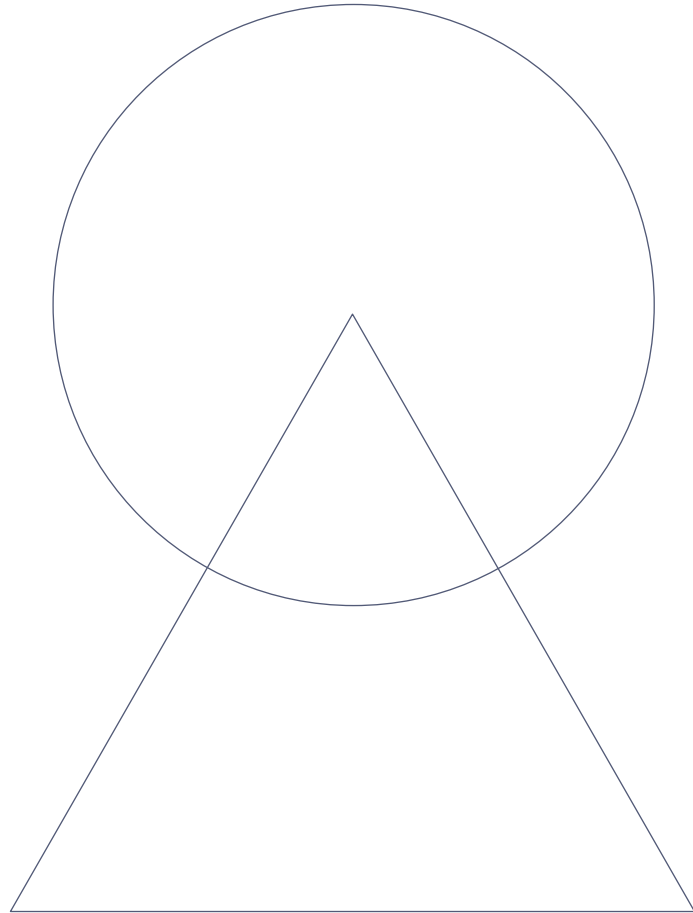


# 아름과 삶이 함께 하는 학습



2018 수원시 평생학습관 운영성과집

앞과 삶이  
함께  
하는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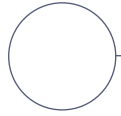


## 2018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성과집

한 해 돌아보기	6
수원시평생학습관 소개	10
2018년 한 눈에 보기	12
사업 1. 시민주도학습, 더 깊고 더 강하게	21
사업 2. 모두를 위한 학습관으로 한 발!	29
사업 3. 묵묵하게 학습관을 지켜오며	37
사업 4. 한결같은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	43
2018년 숫자로 보기	50
부록	58

# 한 해 돌아보기

## 새로운 시대의 학습을 향해



출근 전 신문 보기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다. 어느 날 칼럼을 읽어 내려가다 잠시 멈췄던 적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래 칼럼 어느 지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다.

“1994년 서울대 신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가 나간 지도 오래다. ‘시민의 정부’는 성폭력 적폐 청산 위원회를 꾸리고 제대로 현황 파악을 해내리라 믿는다. 포르노 영화의 주인공과 공범자들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깊이 반성하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모와 왕따의 문화를 바꾸어내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이 무감했던 이들도 실은 공범이다.” 2018년 2월 20일, 한겨레신문 조한혜정 칼럼 일부 발췌

이 중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은 워딩은 “서울대 신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성희롱이 별로 큰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1993년 한국 사회. 수치스러워 피해자가 문제 제기도 잘 하지 못하던 당시의 사회맥락에 비춰보면 최초의 공개적, 공식적 재판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최고대학이라 추앙받던 서울대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우 조교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완전히 180도 역전된 프레임이다. 가해자는 증발해 사라지고 오로지 피해자만 저잣거리에서 나뉠굴게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는 ‘서울대 신 교수 사건’으로 검색하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명칭을 바꾸어 결과를 내놓는다. 더 구체적으로 실명인 ‘서울대 신정후 교수 사건’이라고 입력을 해도 똑같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뒤집어 내놓는다. 2차 가해 프레임이 25년이 흐른 후에도 의연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읽고 있는 책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저자 리베카 솔닛은 매우 인상적인 발언을 했다. “호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호명은 분명 중요한 단계”이며 따라서 “명명은 해방의 첫 단계”라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 공자는 ‘정명(正名)’이야말로 정치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공자의 의견을 해석하자면 명과 실이 상부 하지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사회는 혼란스럽게 된다.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제에 조응하는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리베카 솔닛의 호명은 단순한 부르기 행위가 아니라 해방을 향한 운동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숨겨져 있던 잔혹함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낸다. 혹은 어떤 중요성이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야기를 바꾸는 일, 이름을 바꾸는 일, 새 이름이나 용어나 표현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일은 세상을 바꾸려 할 때 핵심적인 작업이다.”

이런 논지에 비춰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고구마 한 열 개는 먹고 물을 마시지 않은 느낌이다. 평생교육의 명칭은 어떤가. 명칭에 내재된 개념은? 개념은 정체성과 방향을 담아야 한다. 5장 32조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에 서술된 평생교육의 개념은 이렇다.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헌데 이 개념 정의에서는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모든 교육이라는, 교육 영역의 확장 이외에 평생교육의 알갱이를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하면 그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해보자. ‘학력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교육내용을 6가지 형태로 분류한 것일 뿐 실제 평생교육이 담아야 할 가치와 내용이 없기는 매한가지.

평생학습관이 문화센터와 뭐가 다르냐는 질타, 학습은 없고 취미만 있다는 비아냥 등등의 이유를 오직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 부실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 가치,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평생학습이 되어버린다.

이런들 평생학습이요 저런들 평생학습이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뒤따르기 어렵다. 더 나은 학습을 위한 분투와 긴장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강대중교수의 평생학습 정의에 대한 아래와 같은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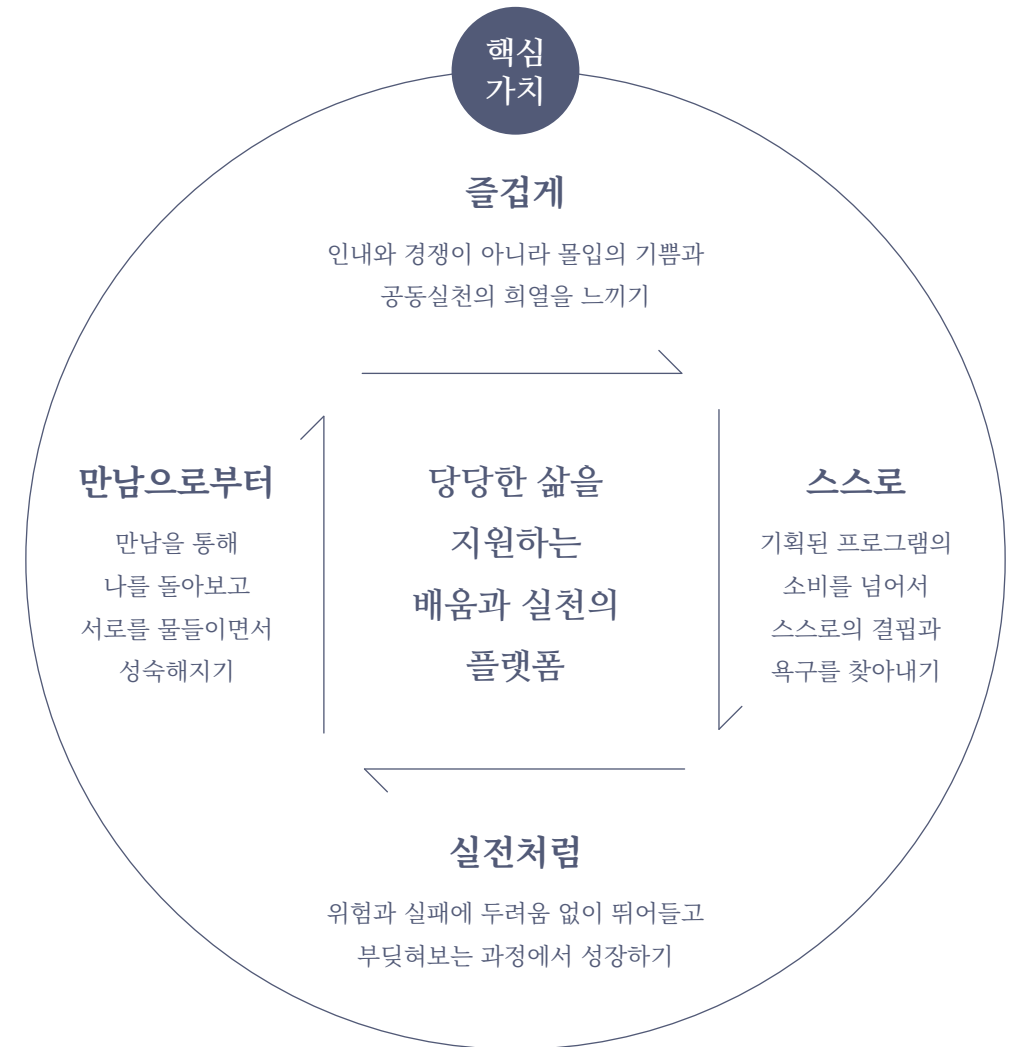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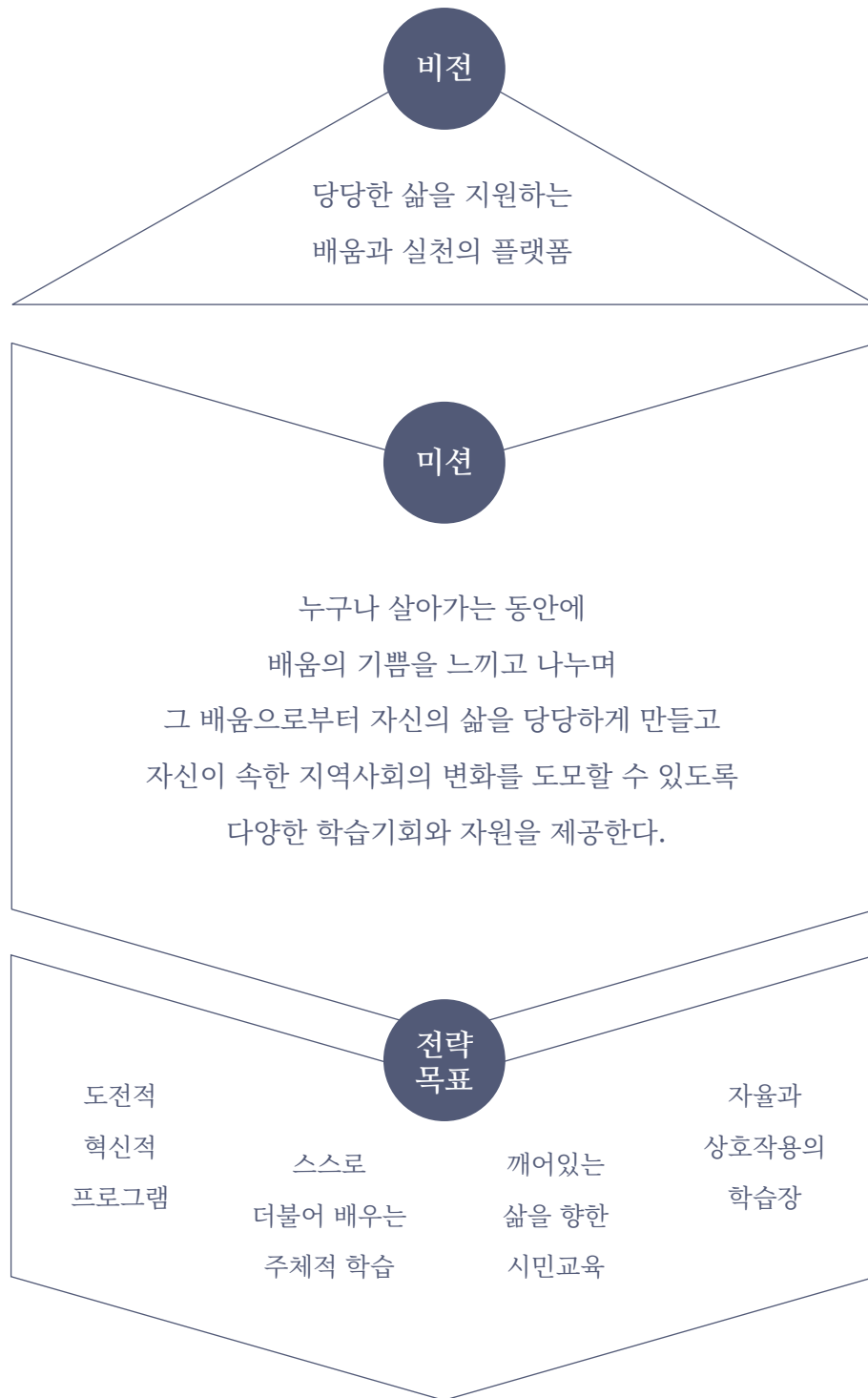
“학습자의 삶, 생활, 인생에서 얻어진 것을 통해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일”

학습이 변화에 관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최소한 전통적 방식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장면을 넘어서는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동적인 습득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학습, 일상의 삶 속에서 스며드는 학습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점점 학습자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평생학습은 고립될 것이다.

2018년 학습관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교실이 아닌 넓게 열린 학습관 앞 공터를 활용하여 학습자, 인근 지역 주민, 더 멀리서 수원 외곽 지역의 많은 시민과 어울렸다. 기존 개념으로는 그것을 결코 학습이라 부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즐겁게 만나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일방의 개입이 아닌 상호관여를 통해 서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지점은 많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2019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 정성원 /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 수원시평생학습관 소개



# 2018년 한 눈에 보기



수원시립서민공원 조성사업

2018년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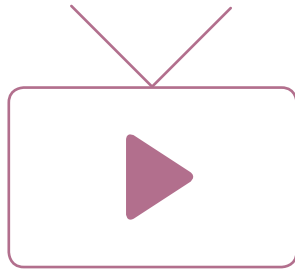






# 시민주도학습 더 깊고, 더 강하게

## 시민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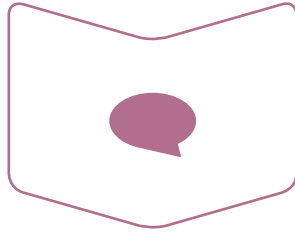


강사 대신 영상을 골라 보며  
함께 토론하고 글로 쓰며 공부했습니다.

생활문화 강좌를 축소했습니다.

2017		2018
144 개	→	106 개

## 시민들이 모여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며  
아프게 고민했습니다.

수강생 수와 연인원도 감소했습니다.

2017		2018
2,228 명	→	1,857 명
28,711 명	→	25,095 명

대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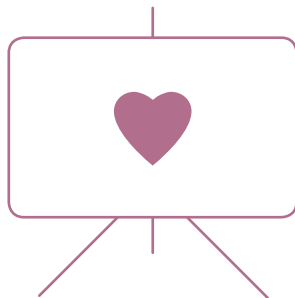
학습모임 수가 증가하고 다양해졌습니다. ▲

2017		2018
61 개	→	85 개

▲ 학습모임 참여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2017		2018
26,797 명	→	30,097 명

## 시민의 기획으로



강연이 열리고, 많은 이들이 왔고,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 더 나은 일상

‘생활문화’가 ‘더 나은 일상’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생활문화의 영역이 단순한 취미·교양을 넘어, 직접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일상 속의 주체적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강좌들을 통합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개의 반으로 운영되어온 강좌는 그 수도 과감히 줄였습니다. 여름에는 방학을 갖고 배운 것을 감사 없이 스스로 익혀보는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그 결과 나에게 생긴 의미 있는 일이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강좌수를 줄이고, 대신 자율학습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강사에게 기대는 배움을 넘어서서 ‘스스로, 그리고 서로 배움’이라는 학습관의 지향을 강사들에게 설득하고,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편리했던 것을 바꾸어나가는 일에는 저항이 뒤따릅니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항도 있었지만 공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을 때는 진도에 맞추기 바빠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을 못했는데, 혼자 공부하다보니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했어요. 배운 것을 스스로 복습하니 만족감이 높아졌지요.” 자율학습 참여자들이 간담회에서 꺼낸 이야기들입니다. 서로의 경험들이 모델이 되어 자기주도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세심한 기획이 필요했습니다.

강사 의존도를 벗어나, 주체적 배움과 배움의 일상성이 확장되기를 그려보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은 강좌는 강사의 도움이 없이 자율학습을 꾸리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름방학이 강의의 흐름을 끊어 놓아 2학기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좌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기획이 필요했음을 깨닫습니다.

## 학습공동체 만들기

모든 부문에서 강좌 후 학습모임을 장려했습니다.

시민인문학교에서는 2013년부터 강좌 후속으로 학습자들의 모임을 장려, 현재 18개의 공부모임이 운영 중입니다. 주로 읽고 사유하고 토론합니다. 2018년에는 거북이공방, 더느린삶, 모두의숲 등 다른 영역에서도 자발적 학습모임을 꾸려보기도 했습니다. 배운 것을 익히고 적용해보는 각각각색의 활동모임들이 등장하고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습모임의 다양한 갈래와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인문학교 공부모임은 학습자들이 자기 관점을 획득하는 것을, 거북이공방은 활동모임을 거치며 수동적 학습자에서 작업자이자 공방을 운영하는 공동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미동아리나 더느린삶에서는 배운 것을 혼자 해보며 자랑하고 실패를 고백하는 과정의 재미 자체를 중심에 놓습니다. 시민기획단은 직접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실제 삶에 개입을 하고자 합니다.

학습모임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장치를 발굴하였습니다.

강좌에서 모임을 조직하고 활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쫓아보며 조직화를 위한 장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모임의 분명한 존재 이유, 여러분끼리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강사와 담당자의 한마디, 배운 것을 자랑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 배운 것을 실천할 때 도움을 받거나 함께 도모할 수 있겠다는 기대 등 사업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점검했습니다.

학습모임과 살아있는 상호작용으로 학습관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학습기획자가 학습모임을 꾸리고 지원할 때 그 역할이나 개입의 수준, 개입의 방법은 모임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분야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같은 모임이라도 시기에 따라 또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다루듯이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정성을 들이면서 학습관의 기획자, 연구원들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학습모임과 관계하고 구성원을 다루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학습자들이 모임을 형성하면 요구도 많아지고 그 안에 갈등도 생깁니다.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도 계몽하듯 가르치려는 것도 쉬운 해결책이 되기 힘듭니다. 학습자들의 의존하려는 경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 강사 대신 유튜브를 섭외하다

## 시민인문학교

거대한 영상 아카이브 유튜브를 학습에 도입했습니다.

시민인문학교는 넓고 넓은 인문학의 세계에서 시민 각자가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만들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벗을 만날 수 있도록 인문학습 플랫폼 유투공을 시작했습니다. 유투공은 'Youtube+You Too+공부'를 합성한 말로, 유튜브에 올라온 강연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을 사람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 소감을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와 맞는 적절한 영상을 시민이 직접 고르고, 그것을 계열화해서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학습관의 연구원들이 주제를 정해 강사를 섭외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영상을 고르고 섭외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입문, 과학, 글쓰기, 경제 등 주제와 분야는 참여하는 사람만큼 무궁무진합니다.

기획단을 꾸려 유투공을 돕습니다.

'유유자적' 기획단도 모집했습니다. 시민들의 유투공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민 진행자 그룹입니다. 시민 진행자와 함께 유투공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몸이 기억하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기처럼 함께 보기는 혼자라면 끝까지 볼 수 없는 영상도 끝까지 보게 합니다. 상영 후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며 다른 이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토론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감을 나누어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학습에 그치지 않고, 말하고 써서 몸이 기억할 수 있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다

## 시민기획단 나침반

시민이 시민을 모았습니다.

강좌 후 모임으로 시작된 시민기획단 나침반은 2015년 첫 기획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1회의 인문학콘서트를 기획,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여행을 다룬 '다른 여행을 상상하라' 5차례, 하반기에는 '감수성 올림: 아프다고 말하기, 괜찮냐고 말 걸기' 9차례를 열었습니다. 올해 시민기획단이 모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만 1천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 과정을 살살이 시민의 힘으로 해내었습니다.

하반기 콘서트는 시민기획단 나침반의 명성을 듣고 다른 기관에서 문을 두드려서 성사되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기획의 보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이 주도해서 더 풍요로운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기획은 물론, 공간을 꾸미고 사회를 보고 강연 내용을 기록해서 기사화하는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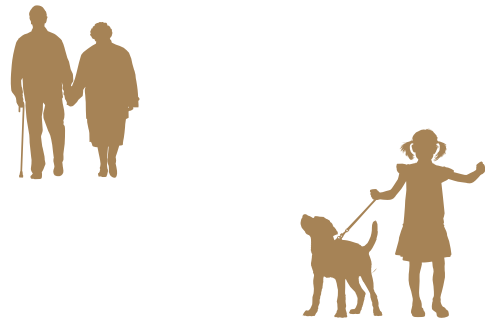
시민의 기획력이 전문가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두 달 가까이 학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아픔까지 공감하고자 하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감수성 올림'. 세상의 무감각을 문제 삼고,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자는 주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뚜렷한 시민의 시선과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시민기획단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사람 나이 세 살이면 한창 말을 배우고 자립심이 커지는 시기. 시민기획단 나침반도 올해 세 살,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 훌쩍 성장을 했습니다. 학습관도 학습공동체의 성장을 곁에서 관찰하고 돕고 자극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과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다른 무대에서 만나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모두를 위한 학습관으로 한 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청년들이  
학습관에 자주 보였습니다.

어린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학습관 모두의숲에 와서 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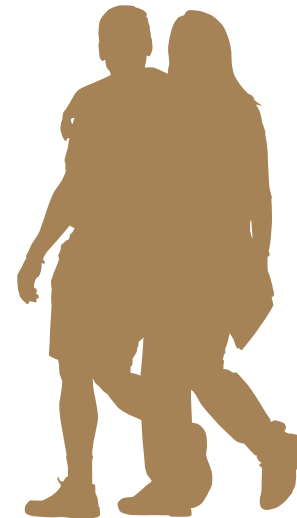


어색해하던 동네 어르신과 상인들,  
이웃들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도 더 편안한 듯 보입니다.  
벌레와 곤충, 벌과 나비도 늘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고  
채소를 기르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20대와 30대의 참여가 늘었습니다.

2017	→	2018
819 명		1,724 명

어린이들도 많아졌습니다.

2017	→	2018
415 명		736 명

수강등록 없이 학습관에 놀러오는 이도 늘었습니다.

2017	→	2018
336 명		907 명

스터디씨클

학습관에 보이지 않던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학습관에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들이 다수이고, 60대, 30대 주부들이 다음을 이루지만, 20대와 30대 청년, 학생, 직장인들과는 좀처럼 관계를 갖지 못해왔습니다. 2017년 작은 시도를 발판으로 3개월 장기과정을 개설하고 청년들을 기다렸습니다.

스타디서클 대화행 열차에 27명의 청년이 탑승했습니다.

각자의 경험에 기반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청년 스터디씨클을 운영했습니다.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고, 대화를 통해 쌓은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문제들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연대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정치인들도 토크쇼를 열어 응원했습니다.

헬조선, 흙수저를 거부하고 스스로 바꾸기 위해 맨 앞에 선 이들, 낮은 문법 대신 사람 살이가 바로 서도록 문제에 다가선 이들. 6.13 지방선거에서 활약했던 청년후보 4인이 학습관을 찾아왔습니다. 청년 스터디씨클 참가자들도 함께 해서 조금 더 나아질 우리 삶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청년 학습&실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터디서클의 특징인 대화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통해 평등하고 자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클이 독립적인 주제로 운영되면서 안정화되어 정기 자율모임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연대의 또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숲'을 시민들과 상상하고 설계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주차장 옆에는 시민들이 오가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땅의 깊이가 1m 남짓인 공원에서 나무들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생기가 사라져가는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습자들과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덧대어 계획을 그려갔습니다.

공터를 생태적 학습공간으로 살려냈습니다.

먼저 땅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시농제를 하고 도시농부 워크숍을 열어 잔디를 거두고 씨를 뿌리고 가꾸며 계절을 지나 작물을 거두고 수확제를 했습니다. 메마른 땅이 초록으로 뒤덮히고, 열매를 맺어 씨앗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벌레와 곤충, 벌과 고양이들도 모두의숲에 모여들었습니다. 땅위의 살아있는 것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모두의숲은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시킨 공간입니다.

모두의숲 공간에 놓인 벤치, 평상, 화단, 놀이 기물 모두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제작되었습니다. 2017년 시민들과 상상하고 논의했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된 것입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었다는 점은 모두의숲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의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농작물의 서리나 기물 파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대처 방안도 찾기 힘들었고, 도시의 속도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자연의 속도를 이해시키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 모두의숲 놀이터축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모두에게  
주인되기  
를 제안했습니다.

조성된 모두의숲을 알리고 진정한 '모두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모두의놀이터축제'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 여성과 남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과 하룻밤을 지내며 도시생활을 되돌아보는 캠프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나무를 같이 심고 공동노동으로 모두의숲을 채우고 가꾸는 약속이자 의례를 거행했습니다.

모두의놀이터도  
시민의 손으로  
조성했습니다.

거북이공방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모두의숲에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놀이와 놀잇감에 대해서 우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놀면 재밌을까? 누구와 놀 수 있을까? 경기도시공사의 목공동아리와 함께 2달에 걸쳐 모두의숲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축제를 열고  
놀이를 즐기는  
행함을 통해  
배움을  
얻었습니다.

놀이터축제는 예술가와 놀이활동가, 학습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운영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배웠고, 강좌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발판삼아 함께 놀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모습의 놀이터만 상상하지 않습니다. 놀이의 재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상의 재료로 누구나 만들고 즐길 수 있다는 것, 배움과 놀이는 크게 다르지 않고, 함께하면 더욱 즐겁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축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공공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저씨도, 형, 누나, 꼬마들도 누구나 신나게 같이 놀 수 있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더 자주 찾아 오고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이웃들과는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지나가고 머물며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모두의숲은  
모두에게  
어필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에게 새롭고 낯선 것은 '위험'과 동의어로 간주됩니다. 익숙한 형식으로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과 새로운 시도로 흥미를 자극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니아층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층의 간극이 커서, 모든 시민들을 아우르지는 못했습니다.

## 학습관 활짝여는날

학습관 문을  
활짝 열고 주민을  
환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학습관의 활동을 수강생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날입니다. 학습관의 강좌, 워크숍, 프로젝트, 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평생학습의 참여 욕구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2017년 대비 4배의 인원인 총 2,040명이 다녀갔습니다.

학습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학습관 대표 강좌들의 역사를 전시로 꾸렸습니다. 공부모임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민학습자들의 콘서트 '동네Book소리', 더느린삶 강좌를 통해 익힌 생활의 기술과 결과물을 나누는 '더느린시장'도 열렸습니다. 활짝 여는 날을 위한 특별한 누구나학교, 동아리들의 발표와 전시도 빛났습니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참여를  
늘렸습니다.

우만동과 연무동에 사는 어린이부터 성인 20명을 만나 가볍게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목소리를 담아 함께 이웃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 '보통의 목소리'를 열었습니다. '보통의 목소리' 전시에 참여해준 주민들을 포함해 학습관과 작은 인연을 가진 동네 사람들을 초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관계가 끈끈해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야 합니다.

'활짝여는날'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해서, 수원시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시민들,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알리고, 자극하고, 체험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평생학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관에 오지 못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평생학습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자 합니다.

# 묵묵하게 학습관을 지켜오며

학습관이 개관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설물에도 지난 세월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들(보수가 필요한)이 많아졌습니다. 시설물의 보수는 시공방법과 사용재료의 특성, 기능공의 숙련도 등 작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관은 1년 내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일정을 잡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학습관 내부 시설물 보수가 많은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1층 석고 천장 보수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석고 천장은 종이를 압축해서 만든 내장재로 습도와 온도 등 물리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축물이 자리 잡는 동안의 미세한 움직임과 내장재의 변화는 천장 크랙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최근 들어 1층 천장에 크랙, 즉 균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균열이 있는 부분만 보수하고 마감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날씨 변화가 컸고, 내장재의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천장의 균열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신축 건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협력업체에 문의하고, 다양한 시공방법을 찾아본 결과 크랙 부분을 절단하고 중간 유격을 주어 온도와 습도의 영향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시공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랙 부분을 절단하고 그 부분에 조인트 비드를 설치, 다시 석고로 마감하는 시공법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으로 석고가 수축 완료되더라도 공간의 여유를 두어 크랙을 방지하는 시공방법입니다. 석고로 칠한 후 사포 작업을 하고 다시 한 번 도색을 하면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데, 마감재인 페티가 건조되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건조 후 다시 마감재를 고르게 사포하고 (이 과정을 2~3번 반복) 페인트칠을 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존과 같은 색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 덧입혀진 목은 때의 색깔과 같은 색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최대한 비슷한 색을 찾아 칠한 뒤 정리된 천장을 보니, 오랜 숙제를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재료의 성질을 고려한 시공방법도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색깔과 냄새, 질감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닳고 변색하면서 조금씩 이곳만의 색깔로 나타난 것입니다. (학습관의 초기 내부 모습은 차갑고 새하얀 병원 같았습니다. 덕분에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품는 안온함이 부족하다는 얘기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매일같이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닐 겁니다. 업무의 영역이 아니었다면 그런 변화에 둔감했겠죠. 7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빛바랜 느낌이 있는 곳. 색이 바란 것이 건축물의 쓰임새와 의미가 다 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주변 공동체의 변화 역시 퇴색이 아닌,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 공공재는 어떻게 이용 되는가

## 공공시설 확대개방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시의 공공시설물 확대개방 방침에 따라, 강좌가 진행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원시민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대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이 확대 개방되면서 ‘시민 편의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공공재의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상황과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이용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권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간(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한편 차량 소유자들의 편의까지 해소하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난이 심한 요즘, 개방된 주차장은 차량 소유자라면 언제든 사용하고 싶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관의 주차장은 늘 만차입니다. 주차장 이용자는 학습관 방문자에서부터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주차하고 온종일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장은 한정된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학습관과 더불어 총 3개의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늘 비좁고 경비 담당자는 주차관리 업무만으로도 벅찰 지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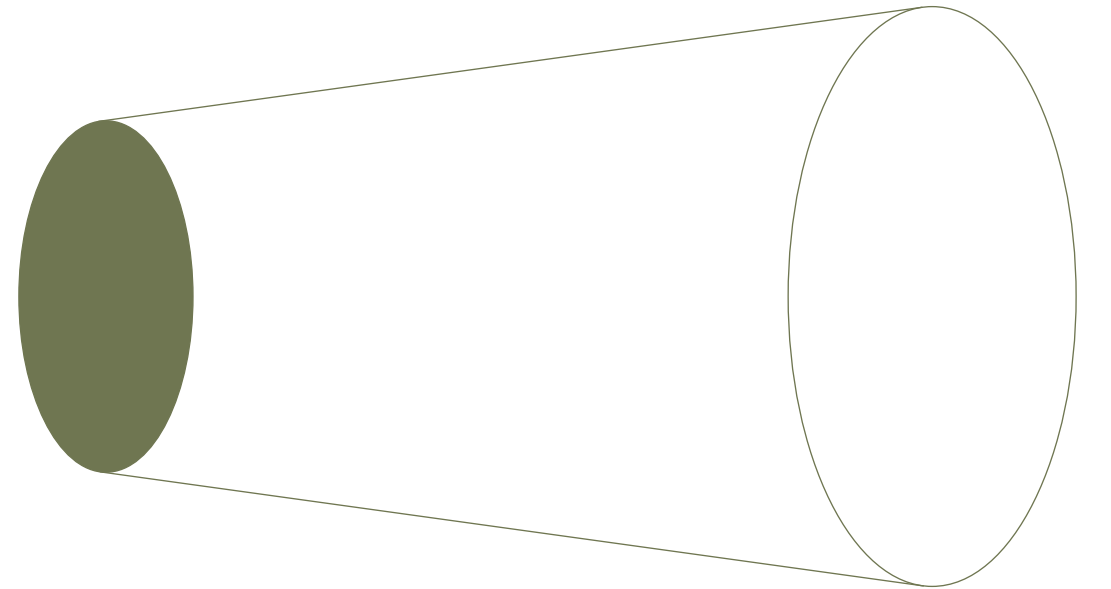
반복되는 주차난 속에 하루는 대관 이용자와 경비 담당자 간에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는 경비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 관계자를 호출하고, 양쪽 당사자의 얘기를 모두 들은 후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경고도 해가며 사태를 겨우 마무리했고, 해당 업체의 대관 담당자에게는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날의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원칙도 유명무실하기만 했습니다.** 긴급 내부회의를 열어 해당 업체에 공식적인 경고문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참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문은 규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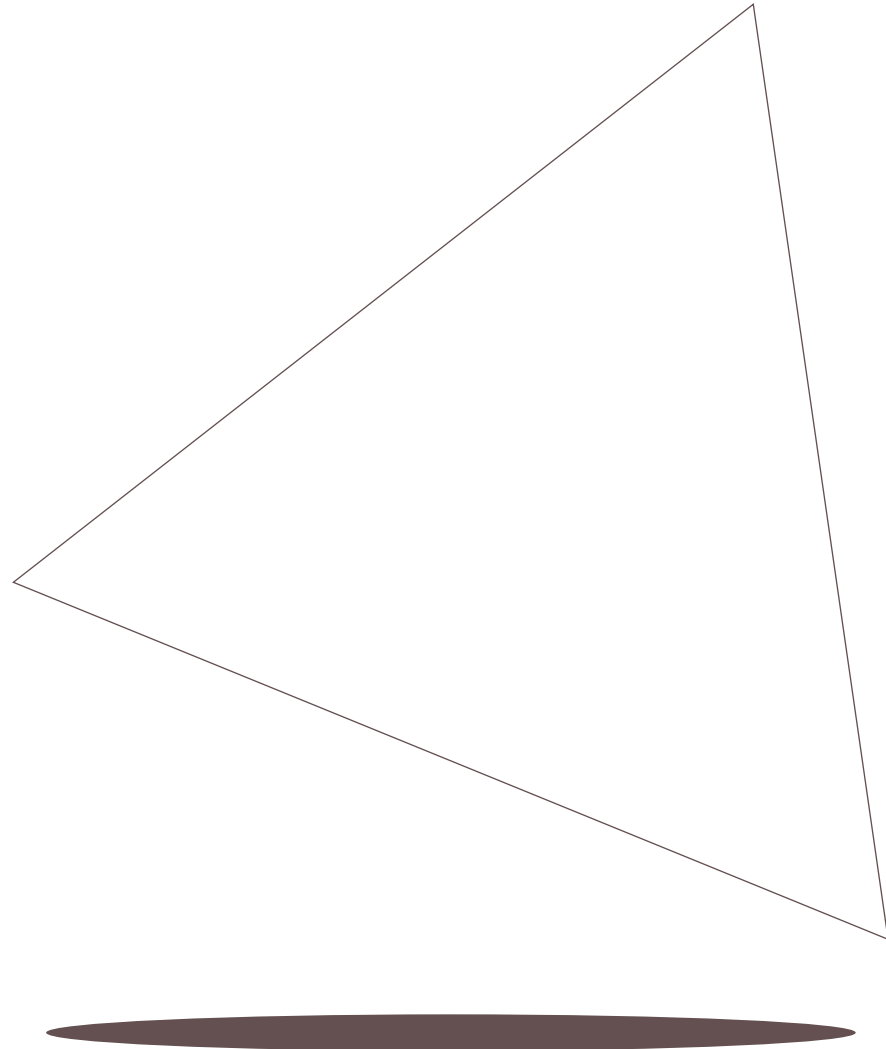
1년 후, 폭언 사태가 있었던 업체에서 다시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경비 담당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행사 당일 별 탈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대관 이용자들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주차장을 무리해서 쓰지 않았고요. 외부 환경은 그 날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비좁은 주차장과 똑같은 대관 이용자들. 폭언까지 오갔던 1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이의 변화는 딱 한 가지. 이용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바뀐 것입니다. 아마도 새 담당자는 학습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요구했고, 이용자 개인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담당자는 단순한 이용자의 입장을 넘어, 학습관과 대관 이용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의 변화된 인식이 모든 이용자들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한숨 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결코 작은 움직임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 의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민 의식에는 모두를 위한 규칙을 지키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개인의 이기심이 공공재를 훼손하고 남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당한 요구가 되지 못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시설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소중히 하고 타인의 몫까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한결같은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접근이 쉽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도 열었습니다.

지속하고 어울리기 쉽게 다른 배움의 형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세심한 준비가 아쉬웠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더느린시장도 탄생했습니다.

장을 담기 좋은 때, 막걸리 발효에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는 시기, 제철 채소가 풍성한 시기 등 특별한 장치나 시설 없이도 배운 것을 집에서 실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강조했고, 배운 지식이 생활의 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배움을 통한 관계 맺기에 집중하느라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1회 강좌를 편성, 장기강좌가 부담스럽거나 참여가 힘들었던 새로운 대상층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칼 다루는 법, 밥과 소금과 같은 기본재료에 대한 이해 등 요리의 기본기를 익히는 탐구생활 시리즈는 '밥하기'에 문턱을 느꼈던 중장년 남성과 직장인 주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요리 선생님의 식탁을 공유하고 그 안의 가치와 철학을 나누는 강좌는 요리법이 아닌 소통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후속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책임을 높이고 협력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일단 참여해본 사람들은 만족했지만 새로운 수업에 대한 모집은 어려웠습니다. 토요일 편성을 평일로 옮겨 가족의 식생활을 결정 짓는 주부층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요리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적었습니다. 다른 방식, 새로운 유입 등을 기대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존하는 도시양봉가와 '전통주를 사랑하는 모임' 2개의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시장 운영진 '느리머'를 구성하고,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 강좌를 통한 배움의 실천을 독려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나누는 '더느린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터는 물건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이야기가 공유되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실천한 사람에게는 보람을, 새내기 학습자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더느린삶

## 거북이공방

누구에게나 열린 공방의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누구나 방문해서 자신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북이공방 오픈데이는 늦은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혼자서는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서 작업대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작업의 시작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손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오픈워크숍도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거북이공방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 '뚝뚝뚝 작은 목수'를 열었습니다. 목공은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 어른들의 기준에 맞추려는 태도는 종종 장애물이 되어 다투며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어린 목수들은 때로는 종일 고민하고 때로는 종일 톱질만 하며, 본인만의 시간과 방법에 맞춰 자기만의 기술을 터득하고 몫을 다 해내었습니다.

수준별 과정을 만들고 탐방 등 형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정규강좌는 1년 단위로 기획하고 숙련 단계별 과정을 마련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2017년에 시범 운영되었던 대나무 강좌는 숲으로 가서 직접 나무를 채취하고 다듬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형식과 장소가 제한된 일반적인 강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이 경험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엄청난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활동모임이 늘어나고 학습자가 작업자로 성장했습니다.

강사 없이 학습자들끼리 하는 활동모임 4개가 추가로 운영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가며 다양한 만남과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시민들이 작업자가 되어 공방을 자주 찾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워크숍을 열기도 했습니다. 동료 작업자가 되어 일을 거들고, 강사가 학습자가 되는 등 서로 역할을 넘나들고 입장을 이해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해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기관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전 안내 및 사고 후 처리과정에 대한 근거기준 및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 누구나학교

누구나학교 라운드테이블 '새롭게 모이고 배우고 꿈꾸자'를 열었습니다.

올 한해 누구나학교의 큰 관심사는 비슷한 고민과 노력, 실천을 하는 타 기관과의 연대와 소통이었습니다. 누구나학교와 MOU를 맺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꾸려지고 있는 누구나학교들, 또는 비슷한 이름의 시민주도형 학습플랫폼 사업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과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의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어떤 어려움과 계획이 있는지 공유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학교 스토리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학교의 이러한 연대와 소통의 노력이 학습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구나학교 참여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영감과 울림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습니다. 우선 누구나학교의 스토리를 가다듬어 여름 한 달 동안 스토리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포털사이트에 누구나학교와 누구나학교 시민 강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누구나학교 댕큐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학습관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의 개별 참여자끼리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구나학교를 여는 시민 학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여자 개개인이 누구나학교라는 플랫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민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학교는 더 넓고 깊고 지속적인 시민학습 플랫폼 이고자 합니다.

누구나학교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 참여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내의 학습관과 마을 단위, 학교 단위의 연결에 그쳤지만, 향후로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넓고 깊은 시민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 뭐라도학교

4기 평생학습 상담사 양성과정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4기 평생학습 상담사를 새로 모집하며 기존 양성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상담과 코칭, 정보습득과 가공, 홍보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더욱 폭넓게 직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상담사 활동과 상담사로서의 비전을 가상체험해볼 수 있는 이들 과정의 심화 비전 워크숍도 운영했습니다.

뭐라도학교의 자립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학습관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날기 위해 방향을 정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 교장 체제가 꾸러지고 사단법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졌습니다. 뭐라도학교 자체 포럼을 열어 수원시 내의 다양한 단체, 기관, 개인들에게 뭐라도학교를 알리고, 회원수 2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진화했습니다.

모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10회의 과정 이후에는 10시간의 실습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최종 선발을 거쳐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정기 활동과 수시 활동을 두어,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교육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인생수업도 뭐라도학교 스스로 꾸려보았습니다.

2018년 인생수업은 8기, 9기까지 진행, 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인생수업은 3기부터 점진적으로 뭐라도학교 멤버들의 실제 참여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9기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뭐라도학교에서 전체 기획 및 워크숍 운영을 맡았습니다.

반딧불이상담사는 평생학습 대표 활동가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반딧불이 평생학습상담사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의 파트너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해 안내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시민 주체입니다. 평생학습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메신저, 대사, 활동가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습관 밖에서도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라도학교 동아리들이 활약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로 움직였던 동아리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업을 했고 지원 사업을 통해 탄탄한 조직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과 '기타와 수다', '라운차사랑', '전래놀이' 동아리는 뭐라도학교의 각종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수원시 홍보영상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기존 평생학습 상담사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도 실행했습니다.

기존 1~3기 상담사 선생님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전화 응대나 대민 활동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원활한 상담사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니어일대일 컴퓨터교실이 지역사회 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꾸준한 활동으로 뭐라도학교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한 사업단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니어일대일컴퓨터교실은 점차 수요가 늘어나 수원시청 등 학습관 바깥에서도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들의 학습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일거리 확보로 선순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 2018년 숫자로 보기

## 1. 전체 프로그램

구분	학기 프로그램	누구나학교	학습공동체	합계
강좌 수	447	212	85	744
인원	9,733	1,645	813	12,191
연인원	47,974	8,672	30,096	86,742

### 1.1. 학기 프로그램

구분	겨울학기(1~2월)	1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2학기(9~12월)	합계
강좌 수	76	156	43	172	447
인원	1,657	3,505	786	3,785	9,733
연인원	8,991	19,756	2,012	17,215	47,974

### 신청장소별

구분	겨울학기(1~2월)	1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2학기(9~12월)	합계
온라인	741	1,247	342	1,483	3,813
방문	916	2,258	444	2,302	5,920
합계	1,657	3,505	786	3,785	9,733

### 성별

구분	겨울학기(1~2월)	1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2학기(9~12월)	합계
남자	464	843	218	961	2,486
여자	1,160	2,254	545	2,541	6,500
미기재	33	408	23	283	747
합계	1,657	3,505	786	3,785	9,733

## 연령별

구분	겨울학기(1~2월)	1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2학기(9~12월)	합계
10대미만	10	22	19	180	231
10대	123	144	13	225	505
20대	135	173	41	221	570
30대	213	365	91	485	1,154
40대	322	638	141	777	1,878
50대	443	866	224	807	2,340
60대	315	713	187	639	1,854
70대이상	89	322	48	328	787
미기재	7	262	22	123	414
합계	1,657	3,505	786	3,785	9,733

## 지역별

구분	겨울학기(1~2월)	1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2학기(9~12월)	합계
장안구	297	581	148	567	1,593
권선구	192	417	127	540	1,276
팔달구	385	668	158	697	1,908
영통구	407	771	204	755	2,137
수원외	191	518	101	633	1,443
미기재	185	550	48	593	1,376
합계	1,657	3,505	786	3,785	9,733

## 1.2. 누구나학교

구분	상반기 (1~6월)	하반기 (7월~12월)	합계
강좌 수	123	89	212
인원	951	694	1,645
연인원	4,661	4,011	8,672

## 신청장소별

구분	상반기 (1~6월)	하반기 (7월~12월)	합계
온라인	312	258	570
방문	639	436	1,075
합계	951	694	1,645

## 성별

구분	상반기 (1~6월)	하반기 (7월~12월)	합계
남자	116	95	211
여자	650	469	1,119
미기재	185	130	315
합계	951	694	1,645

## 연령별

구분	상반기 (1~6월)	하반기 (7월~12월)	합계
10대미만	5	5	10
10대	26	23	49
20대	11	13	24
30대	63	41	104
40대	116	75	191
50대	173	160	333
60대	224	172	396
70대이상	219	175	394
미기재	114	30	144
합계	951	694	1,645

## 지역별

구분	상반기 (1~6월)	하반기 (7월~12월)	합계
장안구	179	108	287
권선구	65	53	118
팔달구	172	130	302
영통구	204	157	361
수원외	90	62	152
미기재	241	184	425
합계	951	694	1,645

## 1.3. 학습공동체

구분	합계
개수	85
인원	813
연인원	30,097

## 성별

구분	합계
남자	104
여자	354
미기재	355
합계	813

## 연령별

구분	합계
20대	24
30대	50
40대	110
50대	144
60대	100
70대이상	41
미기재	344
합계	813

## 지역별

구분	합계
장안구	89
권선구	74
팔달구	106
영통구	120
수원외	55
미기재	369
합계	813

## 2. 온라인 이용자

월	홈페이지	누구나학교	웹진 와	거북이공방 블로그	인문사회공유카페	합계
1월	20,432	2,328	6,356	1,332	7,078	37,526
2월	22,379	3,068	6,916	1,869	5,710	39,942
3월	24,373	4,147	7,864	2,256	3,780	42,420
4월	19,117	5,156	9,438	1,900	3,731	39,342
5월	16,883	5,684	8,971	2,760	3,278	37,576
6월	21,867	4,042	6,358	2,300	3,639	38,206
7월	17,439	3,433	5,645	1,579	3,858	31,954
8월	35,489	3,680	6,091	2,577	2,670	50,507
9월	20,704	4,675	5,736	3,844	2,468	37,427
10월	20,084	5,916	13,628	3,819	3,418	46,865
11월	17,723	7,044	17,061	2,559	2,731	47,118
12월	39,132	4,688	10,952	2,291	3,004	60,067
합계	275,622	53,861	105,016	29,086	45,365	508,950
1일 평균	755	148	288	80	124	1,394

## 3. 웹진 &lt;와&gt; 구독자

호수	발행일	발송 인원
151호	01월 03일	11,008
152호	01월 17일	11,101
153호	01월 31일	11,200
154호	02월 14일	11,248
155호	02월 28일	11,262
156호	03월 14일	11,316
157호	03월 28일	11,340
158호	04월 11일	11,324
159호	04월 25일	11,354
160호	05월 09일	11,378
161호	05월 23일	11,381
162호	06월 06일	11,367
163호	06월 20일	11,359
164호	07월 04일	11,375
165호	07월 18일	11,384
166호	08월 01일	11,414
167호	08월 14일	10,585
168호	08월 29일	10,727
169호	09월 12일	10,717
170호	09월 26일	10,570
171호	10월 17일	10,742
172호	10월 31일	10,658
173호	11월 14일	10,716
174호	11월 28일	10,780
175호	12월 12일	10,859
176호	12월 26일	10,805
합계		287,970
평균		11,076

## 4. 언론보도

월	보도 건 수
1월	8
2월	9
3월	7
4월	8
5월	2
6월	8
7월	8
8월	18
9월	14
10월	56
11월	5
12월	16
합계	159

## 5. 공간 이용자

구분	강의실	동아리실	시설대관	상담실	계
1월	6,431	1,880	797	1,383	10,491
2월	4,821	1,676	2,445	1,255	10,197
3월	5,738	902	1,455	1,114	9,209
4월	6,633	1,620	1,093	803	10,149
5월	5,776	1,618	1,257	646	9,297
6월	6,378	1,579	1,759	1,332	11,048
7월	4,164	1,657	2,458	1,041	9,320
8월	3,515	1,673	4,281	1,344	10,813
9월	4,996	1,549	435	1,378	8,358
10월	7,096	1,732	945	1,338	11,111
11월	7,225	1,640	1,646	918	11,429
12월	4,840	1,615	1,564	1,137	9,156
합계	67,613	19,141	20,135	13,689	120,578
1일 평균	228	65	68	46	407

# 부록

## 전체 강좌 목록

### 명사특강

강좌명	강사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	주호민
놀이, 위험해야 안전하다	편해문
오늘 한 폰 벌면 내일 두 폰 나가고	우석훈
당신 삶의 물음표는 무엇입니까	김민섭
청년 정치 토크쇼 <골든 크로스: 대역전의 날>	고은영,곽승희,조기원,한진희

### 당당한삶 특강

강좌명	강사
그런 공부라면 때려치워라 : 성과에서 성장으로의 전환	엄기호
적폐의 기원과 한국사회의 미래	김동춘
엄마도 힐링이 필요해	로리주희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임옥희
세상과 대화하는 과학	강양구
상식을 깨는 뇌과학 이야기	송민령
노명우의 인생극장	노명우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장수연
인권활동가의 좌충우돌 피트니스 체험기	류은숙
백일장: 은유와 함께 하는 글쓰기 / 로자와 서평쓰기	-
백일장특강 : 언어 발명하기 - 삶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은유
백일장특강 : 응시하는 글쓰기 - 나의 언어는 어떻게 세상과 만나는가	은유
백일장특강 : 서평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백일장특강 :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이현우
정관장의 2018 평생학습 플랜	정성원
개인의 기록 : 소소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법	안정희
마을의 기록 : 지역·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	최서영

### 시민인문학교

강좌명	강사
개인, 빼어난 속물 : 근대의 사회적 주체인 개인과 개인주의	엄기호
변동하는 우리 정치 앞서보기	김만권
인문 내공 글쓰기	박민영
다른 여행을 상상하라	정지우, 김현아, 노명우, 임택, 이다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오건호,
니체와 철학하기	채운
소비사회와 대중문화	엄기호
야누스의 기술 : 20세기 기술의 문화사	김명진
페미니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이민경
월간고전 07월 군주론 : 누가 훌륭한 정치지도자인가?	김만권
월간고전 08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	채운
월간고전 09월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장석준
월간고전 10월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명우
월간고전 11월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홍기빈
월간뮤직 (조용필, 비틀즈, 신중현, 밥 딜런, 김민기, 송창식)	서정민갑
유투공 인문학 들어가기 : 나는 누구? 여긴 어디?	-
유투공 과학과 친해지기 : 로봇, 인공지능, 인간의 미래	-
유투공 미투? 성평등? 열려라 여성주의! (눈길, 새날과 함께)	-
유투공 경제를 보는 눈	-
유투공 글쓰기 입문 : 왜 쓰는가	-
유투공 글쓰기 실전 : 쓰기 읽기 나누기	-
유투공 경제 : 자본주의 이해하기	-
2018 편파적 콘서트 : 감수성올림	은유, 김사월, 김동산, 김수박, 장혜영, 김애란, 시와, 김명식, 조한혜정, 윤성근, 박진

## 더 나은 일상

강좌명	강사
오늘을 기록하는 방법 : 하루 한 장	김지승, 김지은, 이경민, 안정희
세상의 모든 음악	서정민갑
함께 즐겨요! 비주얼씽킹으로 만드는 2019년	정진호
8명의 화가, 8개의 시선, 8가지의 세계	채운
댄스스포츠 (삼바, 차차차, 자이브)	홍석민
맵시 무브먼트	이영미
요가	김현
왕초보영어, 초보영어, 기초영어	홍이성
컴퓨터 기초반 (윈도우, 인터넷)	이재경
컴퓨터 활용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경애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윤경숙
이오연의 드로잉교실	이오연
초등학생 창의력 만화교실	김을호
초등학생 창의력을 높이는 즐거운 연극	박진숙
청소년 기타클럽	이윤숙
리스닝 잉글리쉬 / 스피킹 잉글리쉬 /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신나는 드럼교실	오세준
우쿨렐레	한은경
클래식 포크기타	신인근
장애청소년 물감과 스케치	이경선
장애청소년 바느질 공예교실	정미숙
장애청소년 어깨동무 경제교실	김효연
사진&동영상 편집 제작 / 사진편집&E-BOOK 제작	문경순
엑셀·파워포인트2010	이경애
쉽게 배우는 DSLR / 스마트폰 사진 / 여행과 사진	전형구
더 나은 일상 간담회 도란도란	권지현

## 더 느린 삶

강좌명	강사
맥주교실	박왕근
막걸리교실	허시명 외
전통주교실	허시명 외
식초교실	허시명 외
전통장교실	이한숙
평화가 깃든 밥상	송정은
집밥 혼밥	채송미
집밥탐구생활 (쌀기 탐구, 고명 탐구)	채송미
밥상, 수다 : 내 밥상 이야기	송정은, 채송미
Bee Happy 도시양봉가 되기	박진
더느린시장 프로젝트 워크숍	권지현

## 모두의 숲

강좌명	강사
텃밭의 봄 준비하기	최용범
도시농부 워크숍: 텃밭의 봄과 여름	최용범
도시농부 워크숍: 텃밭의 가을과 겨울	최용범
내 몸 알기, 몸과의 대화	김미애
마음 라이브	김명선
모두의 오아시스	김지훈
한여름밤의 오아시스	김지훈
정원특강 식물과 안녕	한인에, 정수진, 김정훈
나무심기 워크숍	김장훈
마음 라이브: 아내로 산다는 것	김명선
마음 라이브: 자존감의 회복	김명선

## 거북이공방

강좌명	강사
공방특강 다시 상상하는 사람들: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다	이영연, 김영애, 배지훈, 김대호
나무 깎는 생활	길공방
나무와 칼, 도끼	용형준
대나무 워크숍	한창균
대나무캠프 거북이공방X동지공방	한창균
목공구 배우기	장영환
썰매 만들기 워크숍	장영환
똑딱똑딱 작은 목수 : 작은 손, 톱과 드릴	만물작업소
2018 거북이공방 활동모임 갈무리 PPP	박태식
프로젝트 : 모두의 숲 평상 만들기	-
프로젝트 : 크리스마스나무옷걸이만들기	후가
오픈데이&나잇&위켄드	-
오픈워크숍 (전동드릴, 톱과 클램프)	장영환
오픈워크숍 (똑딱똑딱 작은 목수)	만물작업소

## 연결과변화

강좌명	강사
스터디서클 대화행 1기	박성용 외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4기	-
평생학습상담사 1~3기 역량 강화	신은희
기관간협력-3D 프린팅 진로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김보영

## 학습공동체

구분	모임명
시민인문학교 공부모임	여성주의 읽기모임 '눈길'
	시사클럽
	글항아리 안다미로
	동화읽는 어른
	기린대화 기대
	어린왕자
	시집통째읽기
	오독오독
	정다운 우리
	수요미식회
	심리학 읽기모임
	니체와 별별 이야기
	쓸모
	공부하는주부들 '공주'
	여성주의읽기모임 '새날'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장독	
영화수다	
시민기획단	시민기획단 나침반
더느린삶	전통주를 사랑하는 동아리
	공존하는 도시양봉가
거북이공방	화요거북이
	언플러그드 우드카빙
	두드림
	자라
	그린 우드카빙
	밤깎기
	죽사발
	곰세마리
외부 동아리	다연회 외 30개

## 뽕라도학교

강좌명	강사
인생수업 8기, 9기	-
[01월 월담] 시니어의 행복한 이모작을 위한 북콘서트	강현숙, 김수동, 유경
[03월 월담] 100세 시대, 장수 경제 전략	한주형
[04월 월담] 우리는 포크댄스에 빠졌다!	이영관
[05월 월담] 사(死)랑은 마지막 성장	이정자
[06월 월담] 알고 걷고 느껴보기 - 화성과 시니어	한준
[07월 월담] 와인, 알고 즐기자!	송기철
[09월 월담] 내 삶의 3분 스피치	홍종득
[11월 월담] 신중년의 건강관리	차운정
뽕라도학교 포럼: 신중년의 일과 삶	전임택, 한주형, 김범순
[동아리] 기타모임	-
[동아리] 라온 차 사랑	-
[동아리] 유튜브브런9실	-
[동아리]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
꿈의 학교 나도 아티스트	이해성 외
우리들교실 신규강사 워크숍	남미숙
커피 바리스타 교육	김미선 외
[우리들교실] 시니어 일대일 컴퓨터 교실	강병원, 박종복, 이남열, 이병근, 홍성호
[우리들교실] 여행, 인물 스케치	김명숙
[우리들교실] 사진과 함께 하는 세계여행	김범순
[우리들교실] 사진 촬영 기술 교실	김용현
[우리들교실] 시니어 재미있는 색연필 교실	동길순
[우리들교실] 해피송 팝송 교실	민봉연
[우리들교실] 어린이 한자 교실	박용순
[우리들교실] Storytelling 영어 낭독	손선희
[우리들교실] 엄마표 이지잉글리쉬	이선경
[우리들교실] 건강 힐링 마사지	이성강
[우리들교실] 퓨전 감성 스피치	이종희
[우리들교실] Fun Pops	이철수
[우리들교실] 왕초보 중국어교실	이혜란
[우리들교실] 팝아트 그리기	장맹순
[우리들교실] 고전무용	천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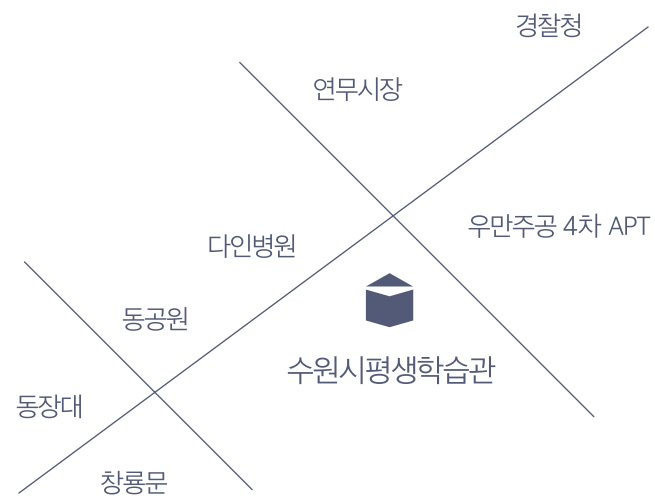
# 수원시평생학습관 직원들



## 조직소개

관 장	정성원			
기 획 실	백현주	홍미라	조혜미	
운 영 팀	유정하	손지훈	김성기	
교 육 팀	곽현지	정희연	김재민	한소정
	정다현	현민주	이완술	
	이가연	조진희	박선영	김영란





( 1623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

tel 031-248-9700 fax 031-248-9902

homepage [learning.suwon.go.kr](http://learning.suwon.go.kr)

webzine [wasuwon.net](http://wasuwon.net)

facebook @suwonedu

